

제10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시 / 서대경



소설 / 구병모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이 제10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2004년 『시와세계』를 통해 등단해 두 권의 시집을 내며 “전례 없이 독창적인 초현실적 심층으로 빚어낸 무의식의 자서전”을 구축해온 서대경 시인과 2008년 ‘창비청소년문학상’을 통해 등단해 “이야기와 진실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탐구하는 탁월한 상상력과 성찰”을 심화해온 구병모 작가가 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인·소설가에게는 김현문학패와 함께 각각 1,000만원(시 부문), 1,500만원(소설 부문)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0월 2일(수)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대경—전례 없이 독창적인 초현실적 심층으로 빚어낸 무의식의 자서전

서대경 시인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시와 세계』로 등단하여, 시집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 『굴뚝의 기사』와 『밥 딜런: 시가 된 노래들』(공역)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김준성문학상을 수상했다.

구병모—이야기와 진실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탐구하는 탁월한 상상력과 성찰

구병모 소설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창비청소년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단 하나의 문장』 『있을 법한 모든 것』 등과 중편소설 『바늘과 가족의 시』 『단지 소설일 뿐이네』, 장편소설 『위저드 베이커리』 『아가미』 『파과』 『네 이웃의 식탁』 『상아의 문으로』 등을 펴냈다. 오늘의작가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인물 이미지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10회 김현문학패 선정 과정_김현 34주기를 맞이하며

2015년, 시장 논리에 매몰된 문학의 독립 활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대표 이인성)의 설립과 함께, 한국 문학 비평을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제시했던 고(故) 김현의 25주기를 기념하여 제정된 ‘김현문학패’는 그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첨부한 ‘김현문학패 소개’ 참조)에 따라 제1회 수상자로 성기완 시인과 한유주 소설가를, 제2회 수상자로 이제니 시인과 김태용 소설가를, 3회 수상자로 강정 시인과 서준환 소설가를, 제4회 수상자로 신영배 시인과 백민석 소설가를, 제5회 수상자로 김경후 시인과 박솔피 소설가를, 제6회 수상자로 신동옥 시인과 김숨 소설가를, 제7회 수상자로 김언 시인과 윤해서 소설가를, 제8회 수상자로 시인 신해옥과 정지돈 소설가를, 제9회 수상자로 황유원 시인과 김이설 소설가를 선정한 바 있다.

김현문학패 시행 10년차를 맞은 금년 1월, 본 선정위원회(김정환, 김태환, 김형중, 조강석, 이인성)는 규정에 따라, 1) 2024년 현재 김현의 타계 나이인 만 48세(1976년생) 이하로서, 2) 등단 이후 해당 장르에서 2권 이상의 저서를 펴냈으며, 3) 그 마지막 저서가 지난 3년(2021~2023년) 사이에 나온 시인·소설가들의 명단과 그들의 출간 도서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김현과 문학실험실의 문학관을 잘 반영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20여 명의 문인에게 비공개로 전제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채택하였다.

이후 2월부터 6월까지 압축된 후보자들의 전 작품을 검토하며 다각도의 토론을 거친 본 선정위원회는, 이제 김현 34주기(6월 27일)에 즈음하여 제10회 수상자로 서대경 시인과 구병모 소설가를 결정·발표하게 되었다.

제10회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서대경—전례 없이 독창적인 초현실적 심층으로 빚어낸 무의식의 자서전

자신의 시작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단 두 권의 시집을 냈을 뿐인 과작의 시인. 그러면서도 치열하고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그 모든 시를 하나의 그물로 얹어놓은 시인. 전례 없이 독창적인 연작 산문시의 창조자인 서대경 시인의 시적 근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필박한 삶의 부조리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죽음 충동”이다. 그러나 이승과 저승 사이에 놓인 연옥과도 같은 깊은 잠의 세계에 펼쳐지는 끝없는 꿈의 “기이한 운동성”이 시적 서사로 이어지면서 죽음은 유예된다. 마치 한 소설의 파편처럼 전개되는 이 ‘일련의 시’들은 현실적 표층 “의식의 소멸” 이후에 떠오르는 초현실적 심층 “무의식”의 자서전이나 다름없다. “소리 없는 비명의 형식”을 띤 그 “푸른 균열의 언어”는 거짓 의미로 “해석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을 깨운다”. 그리고 깨어나도 꿈인 꿈속에, 죽음을 통과해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요나의 욕망을 낳는다. 이 심오한 역설의 시들은 어떤 어설픈 잠언투의 교훈이나 어떤 감상적 위안의 포즈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저 초현실을 통해 현실을 투시하게 함으로써, 시인은 담담히 김현의 문학적 부름에 답하고 있다고나 할까.

구병모—이야기와 진실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탐구하는 탁월한 상상력과 성찰

소설가로서의 구병모는 등단부터 지금까지 왕성한 창작열을 불태워오면서도 거의 타작이 없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작품들은 더욱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는데(2020년대의 『상아의 문으로』 『바늘과 가죽의 시』 『고의는 아니더라도』 『있을법한 모든 것』 『단지 소설일 뿐이네』 등), 왜냐하면 모든 서사적 장르가 콘텐츠 산업의 용광로 속에 해체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오늘날, 구병모는 여전히 소설의 고유한 자리를 치열하게 탐문하는 소설가로서 특히 돋보이기 때문이다. 구병모 소설의 바탕에는 소설이 오직 문장만으로 짓는 이야기라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인식이 깔려 있는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사소한 여흥이나 일시적 위안의 도구로 속화하는 모든 힘에 저항하여 이야기와 진실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열린다. 구병모는 이야기꾼으로서의 탁월한 상상력과 고도의 문학적 반성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소설의 가치가 길들여지지 않는 독립적이고 진실한 정신의 표현에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준다.

선정위원

김정환(시인) 김태환(문학평론가,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문학평론가, 조선대 국문과 교수)
이인성(소설가, 문학실험실 대표) 조강석(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김현문학패 소개

제정 목적과 시행 원칙

문학실험실은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비평가 고 김현의 25주기(2015년 6월 27일)를 맞아, 그를 되새기고 기리며, 그의 이름으로 한국문학의 진정한 질적 진화를 위해 '뜨거운 상징'(김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학상을 제정·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현문학패文學牌'는 문학상으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상을 통해 한국문학의 한 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문학적 특성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나갈 것이다(패에는 패거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우선, 이 문학패는 김현의 미래지향적 문학관에 근거를 두고 그가 일관되게 옹호한, 한국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정신을 기본적인 선정 지침으로 삼는다. 그리고 일정한 선정 조건 아래(아래 참조), 한 해 동안 추수된 단일 작품이나 저서를 대상으로 한 '작품상'이 아니라, 한 작가의 전 작품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작가상'의 성격을 띤다.

시행 규정

'김현문학패'는 위의 목적에 따라 매년 시인·소설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기념 문학패와 창작지원금(시 1,000만 원/소설 1,5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그 수여 대상자는, (1) 선정 연도를 기준으로 만 48세(김현의 타계 나이) 이하이며, (2) 등단 후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하였고, (3) 그중 가장 최근의 저서를 선정 연도 전해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출간한 시인·소설가로 한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장르별로 분리하지 않고 선정 과정을 합동 토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수여 후보 자격이 3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명단이나 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선정자와 선정 이유만을 발표한다.

시행 절차

매년 1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인·소설가의 명단과 출간 저서 목록을 작성하여 일정 수의 추천위원들에게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선정위원회가 이를 참조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압축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선정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말 김현 기일에 즈음하여 최종 선정자를 결정 발표한다. 그리고 시상식은 9월 말에 시행한다.

역대 수상자

제1회 (2015)	시 성기완	소설 한유주
제2회 (2016)	시 이제니	소설 김태용
제3회 (2017)	시 강정	소설 서준환
제4회 (2018)	시 신영배	소설 백민석
제5회 (2019)	시 김경후	소설 박솔뫼
제6회 (2020)	시 신동욱	소설 김숨
제7회 (2021)	시 김언	소설 윤해서
제8회 (2022)	시 신해욱	소설 정지돈
제9회 (2023)	시 황유원	소설 김이설
제10회 (2024)	시 서대경	소설 구병모

김현 1942~1990

1942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성장한 김현은 서울대 문리대 불문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에 뜻을 두기 시작했다. 1962년 『자유문학』에 『나르시스 시론』을 발표하며 등단한 그는 곧 김승옥·최하림 등과 『산문시대』 동인을 결성하게 되고, 그의 열정적 동인 활동은 이후 『사계』, 『68문학』 등을 거쳐, 1970년에 김병익·김치수·김주연과 함께 계간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고 1975년에 문학과지성사를 창립하는 문학사적 결실로 맺어진다.

1971년 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로 취임한 후 서울대 인문대 불문과로 옮겨 재직하면서, 그는 프랑스 문학 연구자이자 한국 문학비평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한국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새 바람을 몰고 온 『한국 문학사』(김윤식 공저)와 『한국 문학의 위상』을 비롯하여, 『상상력과 인간』, 『사회와 윤리』로부터 『문학과 유토피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 『책읽기의 괴로움』 등을 통과해 마지막 『말들의 풍경』에 이르는 일련의 평론집들이 그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정치한 분석·해석을 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영역에서는 『프랑스 비평사』를 시발점으로 비슐라르, 제네바학파, 르네 지라르, 미셸 푸코 등의 비평 세계와 방법론을 추적하는 역작 연구서들과 편서들이 그의 넓은 문학적 관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발병한 간염이 서서히 그의 몸을 허물어나갔지만, 그의 문학적 열정과 사명감을 중단시키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집필·연구 활동 속에 간염은 기어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1990년, 때 이른 그의 죽음을 몰고 왔다. 향년 48세.